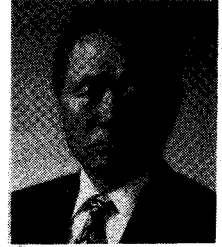


## 농업부문의 잠재시장을 찾아야 한다.



국제농업개발원  
김 원 식

본문은 제단법인 국제 농업개발원이 우리농촌 농업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에 제안한 것을 전재함. 제안서 10항 [편집자 註]

정부가 모르는 7천억시장이 3개나 있다.

### ● 사슴시장

지난해 국내 녹용수급량은 수입 165,581kg, 자급 30,365kg 총 198,946kg으로 소비자가격이 1兩당 4만원을 기준으로할 때 약 2천억원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양록협회는 기타 유입량을 20% 정도로 예상하여 국내시장규모를 약 2천5백~3천억원 정도로 보고있다.

우리나라는 세계녹용 생산량의 80%를 수입하는 녹용소비대국으로 1993년 현재 15.2%의 자급률을 지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지만 실제 해외 여행객들이 녹용, 녹각, 사슴피, 사슴고기, 술 등을 먹거나 사가지고 들어오는 비공식적인 물량을 모두 합하면 연간 7천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예측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장남이라 해도 관언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돼지고기에서 소고기로, 그리고 더욱 맛있는 부위의 소고기로,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선진국에서는 사슴고기로 발전하여 소비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북부유럽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동독) 등지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 소련, 중국 등은 이미 한국시장을 내다보며 사슴사육을 착수했다. 녹용뿐만 아니라 사슴고기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남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슴시장을 예측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대비책이 없다. 우리가 농산물 수출에 결사적으로 매달려도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사슴시장을 추월할 수가 없다.

한약업계에서는 수입산 녹용을 야생용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야생녹용은 지구촌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며 거의 사육된 사

슴의 녹용이다. 녹용을 비롯하여 각종 사슴관련 가공제품들이 최종단계의 소비자들 손에 들어갈 때의 총금액은 약 2조원이 되는데 정책당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농가소득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사슴사육 및 사슴 생성물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를 하루빨리 풀어 주어야 한다. 녹용은 약사법에 의해 한약재 규격화 품목으로 고시되어 있을 뿐아니라 축산법에서는 사슴을 기타 가축으로 분류하고 녹용을 축산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농림수산부에서 관장하여 인삼처럼 건조, 절단, 판매할 수 있도록 하여 유통을 활성화 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에는 사슴을 부업축산규모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100마리까

지는 부업축산규모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사슴을 정규가축(현재 기타가축)으로 인정하고 축산장려 가축으로 양륙장을山野에 1만에서 2만여평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사슴은 사료값과 목초값이 많이 들지 않고 농촌의 노인들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해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좋은작목이다. 또한 사슴은 건강산업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사슴사육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 자급할 수 있다면 7천억원(약 8억 7천5백만달러)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고 우리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축장시험장과 같은 곳에 사슴 연구부서를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

◇ 협회인사 ◇

이사 조동환 사임.  
이사 이광현 보선.  
94. 2. 18.  
이사 최창호 보선.  
94. 5. 4.

◇ 지회인사 ◇

1. 지회임원

고흥지회장 김영곤  
고흥부회장 조성학  
고흥총무 유성수  
92. 2. 19.  
경북·북부지회장 박종오  
" 부회장 홍정빈,  
" 총무 이희남  
94. 3. 3.  
경주지회장 박노춘

경주총무 안병호

94. 4. 19.

파주지회장 이재정

" 총무 노창호

94. 6. 3.

2지회 조직책

전남 북부(곡성, 구례, 담양) 정환대  
전남 중부(광주, 나주, 화순) 김선주  
전남 서부(목포, 무안, 신안, 함평) 정원동  
전남 남부(해남, 진도, 완도) 최은섭  
전남 동부(순천, 송주, 광양, 여수) 황영규  
강진 김희남  
보성 송치근  
영광 고태주  
영암 임상수  
장성 이충구  
장흥 박종욱  
94. 5. 12.